

여수, 가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순조롭다

5개월간 해양쓰레기 2856t 수거...2028년까지 주기적 관찰 “지속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산물 제공·어가 소득 증대 도모”

여수 가막만을 청정어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수시는 '가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통해 가막만 해역 510ha 면적에서 침적 해양 폐기물 2856t을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 폐기물을 걷어 올린 기간은 올해 4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5개월가량이다. 수거해 처리한 오염원은 폐 어구·양식 폐자재 1995t과 폐 패각 861t 등이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선정돼 신월·돌산·화양 3개 권역에서 지난해부터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왔다.

가막만 해역 일대 조개류 양식 어장 안에 있는 오염 퇴적물을 걷어 올리고 효과 조사도 벌이고 있다.

어장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국비 25억원 포함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했다.

오는 12월까지 여수시는 실시간 해양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가막만 해역의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 변화도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청정어장 보존에 힘쓸 예정이다.

가막만 해역에는 어류와 패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보전해역과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뽑힐 만큼 중요한 수산물 생산지이다.

하지만 최근 해양 기후변화에 따라 패류 양식 어장 등 어장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 기초조사 용역을 벌이고, 이듬해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1월 굴·홍합양식 어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어장 재생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5개월간 오염 퇴적물 인양·처리 작업을 했다.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어장 생산을 위해 청정어장 유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남은 폐기물을 마저 수거하기 위해 사업비 3



여수시가 가막만 해역에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해양 폐기물을 걷어 올리고 있다. <여수시 제공>

억원을 투입해 겨울 굴 수확 기간이 끝나고 내년 초까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화시스템으로 어장과 공유수면의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겠다"며 "이

를 통해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안전한 수산물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청년어업인의 꿈 보성서 찾으세요

군, 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

"청년어업인의 꿈과 희망 보성에서 찾으세요." 보성군이 오는 15일까지 '2024년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4명 증가한 9명을 모집한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도모 및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며,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사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계획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 11월 15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나 거주 읍·면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실시한 후 지점상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복지로봇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향상

'복지로봇 생태학산' 세미나 열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효과 검증

순천시가 최근 '복지로봇 생태학산'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로봇 실증사업을 검증했다.

'복지로봇 생태학산 세미나'는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2023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로봇 실증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고, 순천시 복지로봇 운영사례를 보고했다.

순천시는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복지로봇거점센터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가 정서지지 등 로봇 실증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산학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전문위원 13인의 효과성 검증은 로봇 활용성→사용 전·후 인터뷰→이용자 로봇 작동 검증 순으로



순천시가 최근 '복지로봇 생태학산 세미나'를 열고 복지로봇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했다. <순천시 제공>

진행했다.

로봇 효과성 검증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은 입을 모아 "로봇 프로그램이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인지력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로봇이 사회적 약자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봇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이날 말로 로봇의 시인 체험 향상을 위한 '순봇'과 함께하는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순봇' 체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콩 선별장 무상 임대...내년 2월까지

구례군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본소에 있는 콩 선별장(사진)을 내년 2월까지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12일 밝혔다.

콩 선별장에는 일반 콩 선별기 3대, 검정콩 선별기 1대가 설치됐다.

이들 시설은 하루 12t의 콩을 정밀하게 골라낼 수 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콩 재배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무상 임

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선별기를 사용하기 전에 작동법과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박근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콩 선별장은 농업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영농편의를 위한 콩 선별장과 임대사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고교에 '이차전지 소재 교육과정' 신설 추진

산업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박차...시·학교·기업체 상생 약속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건 광양시가 고교 '이차전지 소재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최근 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이차전지 소재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양하이테크고등학교, 한국항공물류고등학교, 기업체 등 20명이 참석했다.

최근 광양지역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향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의 인력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다.

광양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관한 투자 현황과 향후 채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차전지 소재 교육과정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에 공감했다.

하이테크고등학교는 방과 후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물류고등학교는 취업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편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교 측은 광양시에 재정적 지원을, 기업체에는

교육과정 개발, 실습시설·현장 견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기업체 또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과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청년일자리과 안에 산업인력팀을 신설해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강금호 광양시 미래산업국장은 "우리 지역 젊은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고,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교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20일~내년 1월 26일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8기 교육생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숙박시설(원룸형 30개·단독주택형 5개)과 교육장, 영농실습 포장 등을 갖췄다.

교육생에게는 해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체류 공간과 영농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연간 약 120시간이다.

교육에서는 ▲농기계 사용 ▲감자·고구마 재배 ▲옥수수·고추 재배 방법 등을 배운다.

새내기 귀농·귀촌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촌(읍·면)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구례군 제공>

에 1년 이상 돼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이다. 단 근 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역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 신청은 구례군 귀농귀촌팀(061-780-2085)이나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최근 복원된 곡성 동약산 생태축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 동약산 생태축 복원

녹지축·수생태축 연결성 강화...맨발 황톳길·숲길·서식처 등 조성

곡성 동약산 생태축이 복원됐다.

곡성군은 최근 '동약산 생태축(서식처) 복원 사업' 준공식을 열고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알렸다.

지난 2020년 곡성군은 환경부와 '도시생태복원25+'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 생태축 복원을 추진해왔다.

동약산 생태축 서식지는 동약산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었다.

하지만 도심 난개발과 경작지 확장으로 인해 생태축 단절이 심해졌다.

곡성군은 생태축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들에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축과 수생태축 연결성을 강화했다.

생물 서식처를 조성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동약산 생태축에는 생태습지와 생태숲길, 생태관찰로, 생태서식처 등을 조성했다.

특히 주민들이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수 있는 생태 관광 명소도 탄생시켰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앞으로 동약산 생태축 서식처 침식습지와 함께 곡성군의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과 충의공원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생태관광 자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